

◆ 추석을 주님과 함께 보냅시다! ◆

올해 9월 17일(화)은 우리 민족의 대대로 내려오는 추석입니다. 추석은 고향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부모님과 친지들을 찾아 뵙고 평소에 다하지 못한 효를 실천하는 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살아계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죽은 조상까지도 효를 행하여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한 제사에 지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께 대한 효를 가르치고 강조하면서도 돌아가신 조상을 예배하거나 경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히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자들마저도 전통적인 제사의식 문제에 부딪혀서 갈등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한광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아래 주의할 점을 참고하셔서 이번 추석을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1. 음식 준비** - 음식은 조상이 와서 먹는 것이 아니므로 제사상으로 차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간편한 음식을 준비하였다가 추모예배 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 2. 사진이나 영정** - 고인의 사진을 준비하는 것은 좋으나 향이나 촛불을 켜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 3. 절하는 문제** - 고인의 사진이나 영정 또는 음식물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금한 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므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므로 살아계신 부모님께 절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 4. 불신 집안에서의 문제** - 가족 전체가 믿지 않아 제사를 드려야 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절하는 대신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이 때 분명하게 신앙상의 이유로 절을 할 수 없지만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다고 가족 앞에 태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5. 산소에 성묘 갔을 때** -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한다든지 묘지예술품을 보는 행위는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표자가 간단히 기도하고 묘에 묻힌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묘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면 됩니다. 불신 집안일 경우에는 다른 가족이 절할 때에 함께 서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힘쓰십시오.
- 6. 기타** - 우리도 언젠가는 조상들처럼 육신은 한줌의 흙이 되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다짐해야 하고, 형제자매 간에 더없는 우애와 사랑으로 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조상들이 남겨 놓고 가신 훌륭한 뜻을 받들어 교훈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2024 추석가정예배 모범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9길 8(용두동)
Tel. 02-794-7785 Fax. 02-794-0658 www.hkc.or.kr

◆ 추석 가정 예배 ◆

예배 인도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하면 좋습니다.

❖ 예식사 인도자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신 부모님(혹은 선조)을 추모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추석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 묵상기도 인도자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 찬송 301장 다같이

1. 지금까지 지내온것 주의크신 은혜라
한이없는 주의사랑 어찌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손이 항상살펴 주시고
모든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맘도 연약하나 새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에나 험한산길 헤맬때
주의손을 굳게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다시 뵈올날이 날로날로 다가와
무거운짐 주께맡겨 벗을날도 멀잖네
나를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 신앙고백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 기도 가족 중에

❖ 성경봉독 시편 90:16~17 가족 중에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 설교 인도자

❖ 찬송 412장 다같이

1.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싸네
2.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히인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3.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4. 이 땅 위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후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영혼을 덮으소서(아멘)

추모하는 이야기

고인의 행적, 성품, 유훈 등 살아 생전에 있었던 좋은 점을 회고한다.
그래서 그 분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함을 가족
중에서 이야기한다(1~3명).
이 순서를 통해 후손들에게 어른들을 공경하게 하고, 가족의 유대관계를
일깨우며, 자긍심을 갖게 한다.

❖ 합심기도 다같이

고인의 유훈을 생각하며 그대로 살았는지 반성하며 결단한다.

❖ 주기도문 다같이

예배를 마치고 온 가족과 친지들이 식사하면서 교제한다.